

## 해 외 출 장 복 명 서

☐ 출장 목적

출장자	소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직위	연구위원	성명	김돌순
출장기간	2017.8.22.(화) ~ 8.26.(토) (3박 5일)		출장지	캄보디아 프놈펜 시 및 소크람 마을		
출장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농촌진흥청의 위탁과제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성인지적 분석과 발전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선정된 국가 중 하나인 캄보디아에 건립된 해외농업기술센터인 KOPIA 방문</li><li>○ KOPIA 캄보디아 센터에서 수행 중인 ‘사료용 옥수수 연계 육계 생산 고소득 시범마을 육성’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위해 관계자 면접조사<ul style="list-style-type: none"><li>- KOPIA 캄보디아 센터 소장 및 파견 전문가, 캄보디아측 사업 담당 전문가, 사업 추진 캄보디아 지역 마을 남녀 주민 대상</li></ul></li><li>○ 해당 사업 추진배경, 사업 목적, 사업 추진 방법, 현지 남녀 주민의 사업 참여 정도, 성과 등에 대한 현황 파악과 관련 자료 수집</li></ul>					
주최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출장 일정

구분	내용
1일차 (8.22)	[출국] ○ 인천 18:45 → 캄보디아 프놈펜 22:10
2일차 (8.23)	[09:30~11:00] ○ 센터 소장 및 파견 전문가 면접조사 -방진기 (센터 소장) -송기덕 (파견 전문가) -소속 : KOPIA 캄보디아 센터 전문가  [14:00~15:40] ○ 현지인 agency 사업 담당자 면접조사 - 성명 : Dr. Keo Sath - 소속 : 캄보디아 왕립농업대학교 - 직위 : 교수

<p>3일차 (8.24)</p>	<p>[10:00~12: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크람 마을 여성 주민 면접조사</li> <li>- Mrs.Khin Borey 등 5명</li> <li>- 위치: 프놈펜에서 약 80km 거리 위치</li> </ul> <p>[12:00~14: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크람 마을 남성 주민 면접조사</li> <li>- Mr. Khen Tim 등 5명</li> </ul>
<p>4일차 (8.25~26)</p>	<p>[귀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캄보디아 프놈펜 23:20(8/25) → 인천 06:30(8/26)</li> </ul>

# **해외출장 보고서**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성인지적 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캄보디아 출장 보고서(2017. 8. 22 ~ 2017. 8. 26) -**

**2017. 9.**

## I. 출장개요

### 가. 출장과제명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성인지적 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 나. 출장배경

- 농진청이 추진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은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개도국에 농업기술 공여 및 권역별 농업현안 해결을 주도하여 국격을 제고하여 해외농업 진출의 거점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UN을 비롯한 OECD DAC에서는 국제사회 개발협력사업(ODA)을 추진함에 있어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기 본법에서도 개발협력은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여성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등을 기본 정 신으로 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농진청의 KOPIA센터 사업들이 수원국 현지 주민의 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음
- 이런 목적 하에 여러 사업들 중 KOPIA 캄보디아의 ‘사료용 옥수수 연계 육계 생산 고소득 시범마을 육성’ 사업이 선정됨

### 다. 출장목적

- KOPIA 캄보디아 센터에서 수행 중인 ‘사료용 옥수수 연계 육계 생산 고소득 시범마을 육성’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위해 관계자 면접조사
  - KOPIA 캄보디아 센터 소장 및 파견 전문가, 캄보디아측 사업 담당 전문가, 사업 추진 캄보디아 지역 마을 남녀 주민 대상
- 해당 사업 추진배경, 사업 목적, 사업 추진 방법, 현지 남녀 주민의 사업 참여 정도, 성과 인식 등에 대한 인터뷰, 마을 현장 답사, 관련 자료 수집

### 라. 출장개요

- 출장지: 캄보디아 프놈펜 및 소크람 마을

○ 출장자: 1인

<출장자 명단>

이름	소속 및 직책	역할
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캄보디아 여성 및 농업 현황 파악</li> <li>• KOPIA 캄보디아 센터 관계자 면담</li> <li>• 캄보디아 사업 파트너 전문가 면담</li> <li>• 사업 추진 현지 지역 마을주민 남녀 면담</li> </ul>

○ 출장기간 및 일정: 2017.8.22. ~ 2017.8.26. (3박 5일)

일정	내용				
1일차 (8.22)	[출국] ○ 인천 18:45 → 캄보디아 프놈펜 22:10				
	대상자	소속	시간	성명 및 성별	
8월23일 (수)	○ 센터 사업 담당자	○ 캄보디아 KOPIA 센터	09:30~11:00	소장	남
	○ 협력국 사업 전문가	○ 왕립농업대학교	14:00~15:40	전문가	남
8월24일 (목)	○ 현지 주민	○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약 70km 거리에 위치한 소 크람 마을 ( គ្រប់ )	10:00~12:00	អ្នក វេជ្ជ	여
				ស្រី សាមី	여
				អ្នក ហ៊ុន	여
				អ្នក សមី	여
				អ្នក ធីត	여
			12:00~14:00	អ្នក គង	남
				អ្នក គង	남
				អ្នក គង	남
				អ្នក គង	남
				អ្នក គង	남

4일차 (8.25~26)	[귀국] ○ 캄보디아 프놈펜 23:20(8/25) → 인천 06:30(8/26)
------------------	---

## Ⅱ. 주요활동 사항

### 가. 캄보디아 여성 및 농업 현황 파악

#### ○ 기본사항

- 국가(지역)명 :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
- 수도 : 프놈펜(Phnom Penh, 인구 173만)
- 인구 : 1,595만 명(2016.7월 추정치, US CIA World Factbook)
- 면적 : 181,035km<sup>2</sup>(남한의 약 1.8배)
- 민족구성 : 크메르인(90%), 기타 소수민족(베트남, 중국, 참족, 고산족 등)
- 종교 : 소승불교(95%), 기타(5%)
- 기후 : 열대몬순, 고온다습
- 언어 : 크메르어, 불어(50대 이상)
- 시차 : 한국시간 - 2시간
- 정체 : 입헌군주제, 내각제
- 경제현황: GDP : 199억 달러 (2016년 추정치, World Bank), 1인당 GDP : 1,216 달러 (2016년 추정치, IMF)

#### ○성평등 현황

- 세계경제포럼(WEF), 2016년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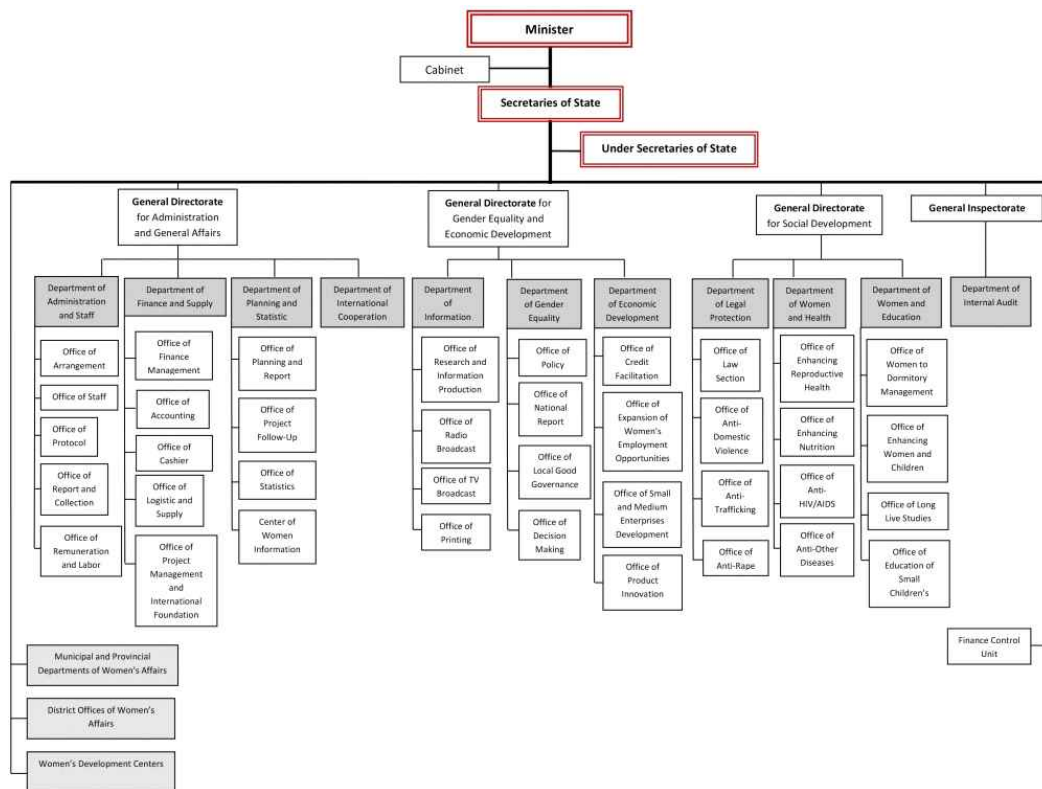
국가	순위	점수
캄보디아	112	0.658
한국	116	0.649

- 유엔개발계획(UNDP), 2017년 성불평등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

국가	순위	점수
캄보디아	112	0.479
한국	10	0.067

#### ○ 여성정책 담당기구: 여성부(Ministry of Women's Affairs)

- 조직도(2017년 6 현재)



• 25개 여성부 산하 지방 조직이 운영되고 있음(Provincial Department of Women's Affairs (PDOWA)).

• 여성개발센터(Women's Development Centers)

- 여성개발센터는 여성부 및 여성부 산하 지방조직의 관리 아래에 운영됨. 센터의 목표는 취업 기회를 늘리고 그들만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는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훈련은 직조, 수공예품 생산, 미용, 재단, 식품 가공에 집중되어 있음.
- 14개 지역에 총 18개의 여성개발센터가 있음. 약 138명의 관리자 및 훈련관이 있으며, 매년 평균 1,900명의 교육생들이 훈련 코스를 완료함.

- 주요 업무

(1) Gender Mainstreaming (성 주류화)

(2) Women's Economic Empowerment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 여성부에서 진행하는 여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다양한 부처들과 관련되어 있으며 농림수산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도 포함됨.

(3) Violence Against Women (여성에 대한 폭력)

(4) Gender and Health (젠더와 건강)

(5) Gender and Education (젠더와 교육)

(6) Women in Politics and Decision Making (정치와 의사결정에서의 여성)

(7) Gender and Climate Change (젠더와 기후변화)

: 캄보디아의 가난한 농촌, 특히 대부분의 여성들은 농업과 천연자원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영향에 가장 취약함.

(8) Vulnerable Group of Women and Girls (여성과 소녀들의 취약집단)

○ 농업 일반 현황

- 캄보디아 전체 국토면적 181,13만ha 면적 중 농경지는 약 439만ha로 약 24.2%(톤레삽호 주변 및 메콩강 중하류)를 차지함. 농경지 중 주요 작물의 재배면적은 벼는 2,969,000ha, 옥수수, 카사바, 고구마 채소 등의 밭작물은 870,000ha, 바나나, 코코넛 등의 다년생(perennial) 작물은 222,000ha, 고무는 328,000ha임.
- 11월부터 4월까지의 건기이며 5월부터 10월까지의 우기로서 대부분의 강수량이 우기에 집중되어 있음. 수리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우기의 풍부한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고지대에는 농업용수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제약요인임.
- 전체 경작지 중 약 68%가 벼 재배에 이용되고 있으며, 총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이중 65%가 벼농사에 종사함. 따라서 벼가 주요 작물로 연도별 재배 및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캄보디아의 벼 생산량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2013년 현재 ha당 3.16톤으로 세계평균 4.3톤,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 평균 4.1톤과 비교할 때 월등히 낮은 수준임.
- 낮은 생산성의 주요 요인은 첫째, 강우에만 의존해 홍수 및 가뭄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으로, 실제 지난 20년간 홍수로 183만 ha의 면적과 가뭄으로 90만 7천ha의 면적에 피해가 발생함.
- 둘째, 농약 및 비료 가격이 높고, 셋째, 벼 종자가 우량하지 못하고 유해동물에 대한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의 낙후 및 농기계화의 부족을 꼽을 수 있음.
- 벼를 제외한 캄보디아의 주요 밭작물은 옥수수, 카사바임. 이중 옥수수 생산 면적비중이 2010년까지 가장 많았으나 2011년부터는 전분 생산과 산간지의 유희 농지, 초지, 개간지 등을 활용한 카사바의 생산면적이 급속히 증가하여 2013년 현재 밭작물 중 카사바의 생산면적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과거 옥수수는 생산면적과 생산량이 적었으나 세계 곡물가격의 상승 영향으로 옥수수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옥수수 재배면적이 2006년 이후 급격히 증가되었음. 하지만 국제곡물시장의 옥수수 가격 하락으로 인해 2013년 현재는 2009년에 비해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였음.

○ 농업 정책 현황

- 농업 정책 담당기구: 농림수산부(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 농업중심 국가로서 2011년 농업분야는 GDP의 36.7%, 전체 고용인구의 71.3%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임. 농업분야 개발전략은 캄보디아 정부의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을 기반으로 하는 NSDP(National Strategy Development Plan)을 기초로 함.

- 캄보디아 정부는 NSDP(2006~2010)과 개정 NSDP(2009~2013)을 제시하여 추진하였고 2014년 현재 사각전략 제 2단계인 2차 NSDP(2014~2018)을 추진하고 있음.



#### -캄보디아 개정 NSDP(2009-2013)

- NSDP(2009~2013)는 사각전략의 핵심인 모범적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사각전략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 경제발전의 핵심 분야인 농업, 물적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등 총 6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설정하고 있음.
- 농업부문이 '03~'07년 동안 매년 7.2%의 성장을 기록하여, '93~'97년 동안의 4.9%의 연평균 성장률 및 '98~'02년 동안의 연평균 1.6% 성장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NSDP(2009~2013)에서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음. 특히 농업은 경제성장의 기초산업으로, 빈곤감소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토지 이용의 다양화, 특히 쌀 수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함.
- 6개 분야 중 농업분야 강화를 위해 농림수산부는 다음과 같이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였음. ①농업생산성/다양성 증진: 기존농지 집중, 고무, 사탕수수 개발을 위한 전략 계획, 시장 확대 노력, ②토지개혁/지뢰제거: 토지 관련법 집행, 원주민공동체 토지등록, 농촌지역 지뢰 등 폭발잔여물제거, ③수산업개혁: 수산자원보존, 수산제품 가공 개선 및 투자확대, ④임업 개혁: 삼림황폐화지역 조림사업 민간유치, 보존 및 기후변화 대응 위한 역량개발 등임.
- 캄보디아의 빈곤층의 85%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촌지역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농촌종합개발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관심은 매우 높으며, NSDP(2009~2013)에서 농촌개발분야에 대한 관리와 실행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음.
  - ① 각 주(Province)와 군(District)의 동 계획 실천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법과 규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농촌발전을 위한 제도적 역량을 강화함.
  - ② 여성 인권을 고려하고 소수 민족들을 포함한 지속적인 대농민 기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인적자원을 개발함.

- ③ 마을단위의 위원회 조직을 통해 지역단위의 소규모 농촌인프라 구축을 실천함.
- ④ 가구에서 사용가능한 안전한 식수의 공급개선 그리고 위생시설을 개선함.
- ⑤ 고품질 농산물과 농가별 참여의 유도를 통해 ‘일촌일품운동(一村一品運動)(one village one product)’을 전개함.
- ⑥ 마을위원회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마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함. 또한 농촌도로의 개선, 식수의 공급, 공중위생에 대한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

-국가전략개발계획(NSDP, 2014-2018)

- 캄보디아의 2차 NSDP(2014~2018)는 부문별 계획대비 목표 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농업분야는 첫째, 생산성, 다양성, 상업성을 고려한 농업부분의 개선, 둘째, 축산과 양식업의 증진, 셋째, 토지개혁과 지뢰 및 불발탄의 제거, 넷째,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운영으로 나누어 발전계획을 수립함.
- 농업부문에 있어 NSDP(2014~2018)에서는 농업부분의 생산성과 다양성에 추가적으로 농업부분의 상업화를 포함하여 계획이 수립되어 천연자원에 의존한 전통적인 농업생산성의 증대뿐만 아니라 가치사슬을 보다 확대시키는 상업화 전략을 포함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농업생산성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농업시스템과 서비스의 강화, 농업협동의 강화와 협동조합의 설치, 농업협동의 강화와 협동조합의 설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실행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NSDP(2014~2018)에서의 농촌분야 개발전략은 NSDP(2009~2013)에서와 같이 빈곤층의 75%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목표를 구체적 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음. ①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생활 격차를 2025년까지 축소하고 ② 캄보디아 정부와 해외기관의 협력으로 농촌종합개발을 실천하여 농촌지역 경제성장을 증진함.
- NSDP(2014~2018)와 NSDP(2009~2013)에서의 농촌개발 부문에서의 큰 차이점은 마을개발위원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으로,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포함된 계획 중 마을개발 분야에 대한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배양을 위한 마을개발위원회 교육훈련, 마을개발계획수립 능력배양을 위한 마을개발위원회의 교육훈련임.

## 나. 인터뷰 진행

### 1) KOPIA 캄보디아 센터 소장 및 전문가(방진기 소장 / 송기덕 전문가)

####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8.23.(수). 09:30~11:00
- 장소 : KOPIA 캄보디아 센터 사무실

#### ○ 인터뷰 주요 내용

- 사업추진 배경: 캄보디아 농가는 일반적으로 벼농사를 지어서 1년에 1헥타르당 1200 USD 소득. 월 100불. 벼농사는 6월~11월까지 함. 나머지 기간에는 소득활동 할 일이 없는 상황.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양계 기술 보급 결정. 캄보디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인

- 양계 농장 기업체의 제안과 캄보디아 바탐방 대학교와의 2013~2014년 동안 연구 과정을 바탕으로 시작하게 됨. 연구결과 양계 100마리 2개월 활동으로 순 소득 약 100불 예상. 1년 벼농사 소득 맞먹는 셈. 2015년부터 3년 동안 본격 실시하게 됨.
- 사전조사: 각 마을별로 가구 수, 인구 수, 소득, 주요 작물 등에 대해 조사함. 여성, 남성 인구수, 성별 주요 활동 등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음. 사전에 조사하라고 했으면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것인데 미처 그것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함. 하지만 남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함.
  - 양성평등 교육 받은 바 없음
  - 사업홍보: 우리 KOPIA 센터는 현지 사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직접 현지 마을에 가서 홍보할 수는 없음. 홍보는 캄보디아 정부를 통해서 함. 면장과 마을 이장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서 주민을 모아놓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사업 목적 :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을이 양계 농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자조금을 축적하는 것임. 양계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사업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마을 스스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마을 공동 자금과 기술 향상임.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양계 영농 조합을 만듦.
  - 양계 영농 조합 구성 및 운영 : 조합 임원은 조합장을 비롯해서 총 5명인데 이 중에서 여성은 1명(부녀회장)임. 소장이 마을 주민에서 최소한 여성 1인을 임원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함.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된 이유는 방글라데시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모하메드 유누스 추진)가 전부 무담보로 여성에게만 돈을 빌려줬는데 100% 다 갚았다는 자료를 접하고 생각하게 된 것임. 조합으로 등록한 농가 대표는 주로 남성(남편)임. 영농조합 운영 규정은 캄보디아 현지 규정에 따름.
  - 사업 참여 : 양계 관련 기술 교육을 실시하면 여성이 약 70%, 남성은 약 30% 참여. 여성의 관심과 참여가 상당히 높음.
  - 주요 성과 : 양계 기간 단축되었음(90일==> 75일==> 60일), 병아리 폐사율 대폭 감소 (20%==> 5%). 그만큼 양계 기술 역량이 향상된 것임. 양계 기술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및 마을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2015년 3개 마을 ==> 현재 5개 마을). 병아리 체온 보온 조절, 백신주사, 계사 소득, 먹이 등.
  - 애로점 : 마을 자조금 대여금 상환 못하는(또는 안하는) 농가 발생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양계 판로개척 어려움. 양계 시기와 캄보디아 현지의 닭 수요가 많은 시기를 잘 연계하여 생각하고, 다양한 판로도 고민해야 함. 마을 조합에서도 적극적인 노력 필요한 상황.



[그림] 캄보디아 센터 소장 및 전문가 면접

## 2) 캄보디아측 사업 담당 전문가(왕립농업대학교 Keo Sath 교수)

###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8.23.(수). 14:00~15:40
- 장소 : 왕립농업대학교 Keo Sath 교수 연구실
- 기타 : 파견 전문가 배석

### ○ 인터뷰 주요 내용

- K 교수의 주요 역할 : KOPIA 센터와 캄보디아 정부, 사업 추진 현지 마을과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함.
- 마을 주민의 사업 참여 자격(조건) : 남녀 누구나 가능 / 양계 기술 배우고 싶은 사람 / 자발적으로 참여 원하는 사람 / 양계장을 지을 수 있는 자기 땅 있는 사람
- 사업 참여 : 여성이 주로 참여함. 남편은 시골 마을 인근에 있는 공장이나 건설현장으로 일하러 감. 그래서 실제 양계 일은 여성이 주로 함.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등록한 사람은 남편 명의로 하는 데 실제로 양계 기술 교육 참여와 닭 돌보는 것은 여성이 하는 경우 많음. 그래서 조합의 공식적인 주요 의사결정 회의에는 남성이 참여하고, 교육 참여나 실제 일은 여성이 함.
- 캄보디아 일반적인 성역할 : 여성들은 15세부터 ~약 25세까지 결혼 전까지 주로 공장에서 일함.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주로 집에서 일 많이 함. 닭, 오리, 돼지, 아이 키우기 등은 여성의 몫. 남편, 아버지는 주로 밖에서 나가 일하고 대표 직위를 맡음. 본 양계 사업도 처음에는 남성(남편)이 조금 하다가 아내에게 기술 전수해 주고 일 맡기며, 본인은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함.
- 캄보디아 정부 여성정책 : 현재 캄보디아 여성부에서는 정부 부처나 여성공무원들 비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며, 여성 비율을 30% 이상 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캄보디아 정부 지침이나 국제기구, NGO 등에서 조합을 구성할 시에나 정부 조직에서 여성이 적어도 30% 참여하도록 강조하고 있음.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 여성들이 나서

는 것을 창피해 하고 수줍어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대표성 참여 향상되고 있음. 예) 왕립농업대학교 부총장 총 7명 중에서 2명이 여성. 수의학과 학생은 1990년에 20명중 여성 3명 정도, 2015년에는 6~7명 정도. 주지사 선거에서 여성 1명 당선, 면장 선거에서 여성 다수 당선)

- 양계 기술 보급 사업 홍보 : 마을 선정 배경은 지방정부(주지사, 면장, 실무 공무원 등)가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는 마을 이장님이 설명함. 마을 선정 기준은 1년에 벼농사를 1모작만 하는 마을임. 천수답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캄보디아에서는 대체로 2~3모작을 많이 하지만 물 공급이 어려운 마을은 1모작에 그치고, 그 만큼 소득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마을 지역 주민 약 90%가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주로 말로 설명해 줌.

- 양성평등 교육은 4~5회 정도 받았음

- 성과 : 첫째, 농업인의 양계 기술 역량 매우 높게 향상됨. 병아리 폐사율이 거의 없음. 이 사업을 보급하기 전에는 캄보디아 시골마을에서는 주로 마당에서 닭을 키웠음. 길 옆에 살기 때문에 병아리들이 자전거, 오토바이에 치어 로드킬도 많았고, 병으로 죽는 경우도 많았음. 그런데 이 사업으로 양계장 안에서 키우니까 로드킬 없어졌고, 아프면 백신 약 투여해서 예방함.

둘째, 양계 생육 기간 단축(약 90일==> 65일)

셋째, 참여 농가의 소득 증가. 다만 최근에는 가격 변동이 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넷째, 마을 공동체 의식, 영농 협동조합 결정해서 자조적 힘 생김. 그리고 농한기 때 농업인의 일거리가 생김. 마을 남성들 할 일이 없을 때는 대낮에도 술을 먹고 노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 거의 없음.



[그림 ] 캄보디아 현지 사업 전문가: 왕립농업대학교 교수 면접(오른쪽 초록색 옷: K 교수)

3) 캄보디아 사업 추진 현지 여성 주민(5명)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8.24.(목). 10:00~12:00
- 장소 : 소크람 마을(이장님 댁)
- 기타 : 파견 전문가 배석

○ 인터뷰 주요 내용

- 문자 해독 능력 : 여성 5명 중 1명만 자기 이름을 쓸 줄 알았음. 그 외는 글을 읽고, 쓰지 못함
- 주요 농사일 : 벼, 감자, 돼지, 닭, 땅콩 등 다양한 작물 재배하는 일 함. 모두 기혼여성. 여성들은 주로 요리, 빨래, 아이 키우기, 집에서 키우는 동물 먹이 주고 돌보기 등 / 남편은 주로 오토바이 택시, 건축, 무거운 짐 옮기기 등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옴.
- 가족 구성 : 부부 및 자녀 4~6명, 시부모/친정부모와 독립해서 살지만 가까운 거리에 거주함
- 사업 인지 : 면장님이 모임에 와서 설명, 왕립농업대학교 관계자가 와서 직접 설명. 이장님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며칠에 기술교육, 모임이 있다고 알려주어서 알았음. 마지막에는 사업참여 여부를 투표 함.
- 사업 참여 목적 : 자녀 교육을 위해서 돈 벌고 싶다 / 기술 배우고 싶다. 양계 기술을 배우면 여성 본인뿐 아니라 자식에게도 전달할 수 있음. 캄보디아 속담에 '지식=돈이다' 있음. 기존에는 집 마당에서 몇 마리만 키웠음. 양계 기술을 배워서 100마리 이상 큰 규모로 해 보고 싶음. 그러면 소득을 좀 더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 사업 관련 주요 활동 : 여성 주민 5명 모두 2015년에 이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음. 병아리 백신 하는 일(남편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매일 하는 것은 여성이 함), 닭집 청소와 소독, 밤에 병아리 집 온도 맞춰 주기, 비타민 먹이기 등. 양계 규모는 100마리~200마리 함. 우리 마을 영농 조합에는 30가구 정도가 가입하고 있는데, 등록은 남편 명의로 하고, 실제 양계 일은 여성이 함. 왜냐하면 부부 모두가 양계사업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음. 수입이 그렇게 안 됨. 우리 가족이 매일매일 먹고 살려면 양계 사업 외에도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됨.
- 성과 : 첫째, 양계 기술 습득, 병아리 거의 안 죽이고 키울 수 있는 기술 알게 됨. 특히 백신 투여 하는 것 배운 것은 큰 성과. 로컬 닭이 아파도 백신 놓으면 건강해 짐. 둘째, 소득이 증가함. 닭 키우면서 자녀에게 용돈 주고, 결혼식 축의금 낼 수 있음 (\* 캄보디아에서는 결혼식 축의금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 결혼식 1회에 20 USD 함, 월평균 소득 100 UDS). 셋째,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게 되어 가족 건강이 좋아 짐. 자기가 키운 닭을 직접 잡아서 먹음. 예전에 사 먹어야 할 때는 돈이 없어서 자주 사먹지 못했음. 이제 파티 할 때 고기 안사고 집에서 키운 닭으로 직접 요리함.

넷째, 만약 기술지원이 더 없어도 스스로 양계 일 할 수 있음. 향후 계속해서 양계 일 하고 싶음.

- 향후 요구사항 : 닭의 몸무게가 1kg 넘으면 현재의 백신으로 병이 잘 낫지 않음. 해결 방안을 알려 주면 좋겠음. 또 다른 농업기술 가르쳐 주면 좋겠음,



[그림 ] 캄보디아 현지 소크람 마을 여성 주민 면접

#### 4) 캄보디아 사업 추진 현지 남성 주민(5명)

#####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8.24.(목). 10:00~12:00
- 장소 : 소크람 마을(이장님 댁)
- 기타 : 파견 전문가 배석, 여성 5명과는 부부사이 아니고 별도 농가임

##### ○ 인터뷰 주요 내용

- 문자 해독 능력 : 남성 5명 모두 자기 스스로 이름, 주소 등 글쓰기 함.
- 주요 농사일 : 벼, 감자, 옥수수, 땅콩, 라임, 소, 돼지, 닭, 등 다양한 작물 재배하는 일 함. 모두 기혼남성.평소에 농사일도 하지만 밖에 나가서 일 많이 함. 농사에서 쟁기일은 남성, 땅콩 심고 돌보는 것은 여성이 함.
- 사업 관련 참여 : 남성 5명 중 4명은 사업단 임원임(조합장 1인, 총무 1인, 마을 이장 1인, 부이장 1인), 평회원 1인
- 사업 인지 : 면장님이 소식 전해 줬고, 그 다음에 왕립농업대학교 관계자가 와서 직접 설명해 줘서 알게 됨.
- 사업 참여 목적 : 첫째, 마을 개발하고 싶다 / 지식을 얻고 싶다. 지식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굶어 죽지 않는다 / 자기 가족 소득 증가 / 자녀의 미래를 위해 지식 배워서 전달하고 싶다
- 사업 관련 주요 활동 : 남성 주민 5명 모두 2015년에 이 사업 시작부터 참여하고 있음. 사양관리, 물, 사료, 청소 등을 함. 병아리 어렸을 때는 하루에 세 번 줘야 함.

닭 얼굴 보면 아프지 판단할 수 있음. 아픈 병아리는 얼굴이 슬픔. 거의 매일 체크 해야 함(\* 여성들이 얘기한 것에 비해서 남성들 스스로는 본인이 양계 일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함). 남성들은 병아리 입식을 언제 할 것인지, 판매방식, 자조금을 어떻게 거두고 관리할 것인지 등 주요 운영 사항을 모여서 결정함. 반면 여성은 이런 회의에는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병아리 돌보는 일에 집중함. 남성 참여자 1인은 아내가 공장일을 나가고, 본인이 양계 일을 100% 하며, 요리와 애기 돌보기를 한다고 함(빨래는 안함). 대체로 가사 일은 아내가 대부분 한다고 함. 그러나 최근에는 남성의 가사일 참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함.

- 성과 : 첫째, 양계 일 덕분에 최근에는 멀리 해외에 일하러 가지 않고 캄보디아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일 할 수 있게 됨. 약 20년 전부터 일본,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돈 벌러 떠남. 가족과 헤어져 살았음. 남성 참여자 5명 중 2명도 해외 근로자 다녀옴. 지금은 양계 사업 있으니까 소득 생겨서 안감.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함. 요즘은 몸이 아파도 빨리 알아서 약을 조금만 먹어도 나옴. 그런데 예전에 해외근로 할 때는 자주 아팠고, 약 많이 먹었음, 약 값도 많이 들었음. 둘째, 요리 할 때 닭을 잡아서 직접 요리 해 먹음. 셋째, 닭똥을 이용해서 다른 농사를 지음. 그 전에는 비료를 사서 벼농사를 지었는데 이제는 닭똥으로 함. 비료 값이 비싼데 비용이 들지 않음. 넷째, 양계 기술을 전문가에게 배운 것 너무 좋음. 다섯째, 영농 조합 자조금 기대만큼 축적함.
- 향후 요구사항 : 향후에도 계속 양계 할 예정임. 닭 종류를 잘 골라서 해 보고 싶음. 다른 농업기술도 가르쳐 주기 바람(예, 돼지 키우기). 가격경쟁을 가진 판로 시장 개척이 과제임.



[그림 ] 캄보디아 현지 소크람 마을 남성 주민 면접